

<2013.08.22.>

## 도,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체계적 관리

###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 본격화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 일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전북도는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 생물권보호지역에 대한 공모와 상표등록은 물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도는 고창 일대가 생물권보전지역의 브랜드화를 통해 주민들의 수익 창출과 연계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공모 및 상표 등록에 나선다. 청정한 고창 갯벌이나 농지, 산지

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농산물, 임산물이 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도록 유도하거나 생태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취지다.

이어 연말까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보전해나가기 위해 각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도는 여기에서 고창갯벌과 운곡습지 등에 대한 다양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방안, 지원계획 등을 반영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다. 도는 고창일대를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규약에 따라 보전과 발전, 지원 3가지 기능을 적용하는 한편 국내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기로 했다.

구대식기자 9press@